

Session 16 우리의 재정의 사용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마 6:19-24) (Loving Jesus in the Use of Our Money)

I. 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 A. 성경은 번영은 축복이며, 가난은 저주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번영(prosperity)에 대한 나의 정의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며,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데 투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정을 소유함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으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을 그분과의 언약의 관계의 혜택으로 이끌 능력을 또한 말한다.

18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 8:18)

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 3 2)

- B. 가난했지만 나중에는 번영하게 된 세 명의 청년(요셉, 다윗, 에스더)에 대한 증거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킨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 당신도 당신을 부로 이끄는 하나의 생각(꿈)을 받을 수도 있다.
- C. 예수님께서서는 재정에 대해 여러 번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38 개의 비유 중, 16 개가 돈에 대한 것이다. 복음서의 10 개 절들 중 하나는 돈이나 소유와 관련되어 있다 - 총 288 개 절.
- D. 그분은 성경의 재정에 대한 다른 원칙들보다 두 주제를 강조하셨다.
1.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을 초자연적을 배가하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다.
 2. 그분은 탐욕의 영적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셨다. 그분은 돈을 올바른 영으로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으며, 이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쌓아두지 않으며, 돈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E. 개관: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6 장에서 재정에 대해 4 번 말씀하셨다.
1. 첫째, 그분은 우리가 이 시대에서 베푸는 구제에 대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을 약속하셨다 (마 6:4).
4 네 구제함(우리의 시간과 돈을 공급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한글 KJV, 네 아버지께서 친히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마 6:4)
 2. 둘째, 그분은 재정을 포함한 우리의 매일의 공급에 대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다 (마 6:11).
11 (기도하라) ...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 6:11)
 3. 셋째, 그분은 탐욕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셨으며, 재정을 사용하되 하늘의 보화를 얻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해드리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강건하게 하도록 사용할 것을 간청하셨다 (마 6:19-24).
 4. 넷째, 그분은 돈의 결핍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 언급하셨다 (마 6:25-33).

F. 우리가 두려움과 탐심에 반대되는 영으로(믿음과 구제), 이에 대항해서 하는 행동의 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 가운데 찾아오시는 양을 어느 정도 결정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재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더욱 많이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주고, 종국적으로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큰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도록 부름 받았다.

*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눅 6:38)*

II. 베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둠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마 6:19-24)

A.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되 하늘의 재정을 얻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해드리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강건하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을 말씀하셨으며, 탐욕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마 6:19-24).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 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22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19-24)*

B. 원리 #1: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런 사랑을 표현해드리기 위해 우리의 재정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셨다 (24 절). 그분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사랑을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맥 안에서 말씀하셨다. 돈은 예수님께 있어서 관계적인 주제이다.

1.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삶의 4 가지 영역으로 그분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이는 마음(감정), 영혼(성품), 생각(사고), 그리고 힘(재원)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9 막
12:30)*

*30 그러므로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한글 KJV, 막 12:30)*

2. 옴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보화로 삼을 것을 훈계했다 (옴 22:24-27).

*24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25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26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옴 22:24-26)*

3.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베푸는 것에 있어서의 희생의 크기는, 베품 재정의 실제적인 양보다 더 중요하다. 과부는 더 많은 넣었지만 적게 희생한 자보다 더 많이 사랑했다 (눅 21:1-4).

3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눅 21:3-4)

- C. 원리 #2: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돈을 하늘의 보화로 바꿀 수 있다 (20 절). 영원한 상급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을 사랑해온 것을 그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나타내준다.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 6:20)

- 1.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재정을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사용함으로 하늘의 보물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다.

33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남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저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눅 12:33)

22 ...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눅 18:22)

- 2. 예수님의 제자들은(the apostles) 천년왕국에서 보좌에 앉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돈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다.

27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천년왕국)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마 19:27-28)

- D. 원리 #3: 땅의 소유물들을 “쌓아두지” 말라 (19 절). 예수님께서서는 탐욕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셨으며, 이는 지나치게 부를 쌓아두거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을 방해할 정도로 돈이나 소유를 갈망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소유나 재산, 저축이나 보험을 소유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계획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등의 일을 지지하고 있다.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저기는 좀과 동록(銅線)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마 6:19)

- 1.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삶이 우리가 가진 돈의 크기에 있는 것이라 생각한 나머지, 소유를 비축해두지 말 것을 경고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향해 부요할 것을 말씀하셨다.

15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16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 20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눅 12:15-21)

- 2.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탐욕과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 3.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부의 속이는 특성으로부터 자신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막혀버리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가르치셨다.

18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막 4:18-19)

21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막 7:21-23)

- 4. 돈에 마음이 뺏기며, 그것이 “내 것”이 되었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힌다.
- 5.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이다 (딤후 6:10). 바울은 우리를 더 큰 악으로 이끄는, 우리가 죽어야 할 탐욕들을 나열했다 (골 3:5; 엡 5:3).

9 부하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딤후 6:9-10)

- E.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돈은 “우리의 돈”이 아니다 – 오직 우리가 베푸는 돈만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다.
- F. **원리 #4:** 우리의 마음과 감정들은 우리가 돈을 쓰는 방법을 따라가게 될 거이다 (21 절). 우리의 감정들은 우리가 돈을 세상적인 것에 쓰건, 하늘의 실재를 향해 쓰건 그 쓰임새를 따라가게 된다.

21 네 보물(돈)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 6:21)

- 1. 우리의 돈과 감정, 즉 사랑과 소망, 더 큰 관심, 소유욕, 질투, 두려움 등은 신비하게 연결되어 있다.
- 2. 자신의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쓰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더욱 더 사랑하게 될 것이며, 자신의 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만을 사랑할 것이다.

- G. **원리 #5:** 만일 우리 마음의 눈이 성하면, 우리는 빛으로 가득 차는, 생명력 넘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22 절).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의 영적 생명에 영향을 끼친다.

22 (마음의) 눈은 몸의 등불(빛의 근원)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 (마 6:22-23)

- 1. 눈이 성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요 비전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 됨을 말한다. 우리의 내적 자아에 영적인 빛으로 영향을 끼치는 등불은 “우리 마음의 눈”이다.
- 2. 눈이 나쁘다는 것은 산상 수훈의 가치를 무시하는 삶의 비전을 말한다.
- 3.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다한 사랑의 기쁨을 알기를 갈망하신다 (이를 희생으로 보기보다). 우리의 상상력은 눈의 문을 통해 커나가게 된다. 만일 우리 마음의 눈들이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주는 것에 고정된다면, 우리의 전체 몸(인격)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 4. 빛으로 가득 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 그분을 향한 사랑,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수용력을 가지게 됨을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을 받아들이며,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살아 있는 이해를 받게 됨으로 기쁨을 누림을 말한다.

5. 성경에서, 우리의 몸은 종종 우리의 전체 개성을 지칭한다 (우리의 외적 자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6. 모든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보물을 좇고 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첫 번째로 돈이나 영향력, 로맨스, 안락함, 유명해짐, 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향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를 염려와 이것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이끌 것이다. 따라서, 그것들에 대해 충성되는 것이 예수님께 충성되는 것보다 쉽다 (24 절).
7. 당신의 삶을 향한 꿈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사역이나 사업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명성을 얻는 것, 혹은 편안한 환경을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도록 힘을 더하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8. 어떤 이들은 제자도에 있어서의 희생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제자도를 따르지 않았을 때 치르는 값은 더 크다.

III. 단순한 삶

- A. 바울은 디모데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있어 만족하는 단순한 삶을 살 것을 권고했다.

8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딤후 6:8)

- B. 우리는 재정적인 축복(번영)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알아야 하며, 동시에 탐욕을 뿌리 뽑지만, 이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쓴 나머지 가난의 영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나는 모든 이들이 번영이라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은혜(이득)를 가르치며, 탐욕의 위험성을 가르치며, 단순한 삶 안에서의 자족함을 가르치기를 촉구한다.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1-13)

- C. 요한은 우리의 마음과 환경, 그리고 관계 등이 번영할 것을 위해 기도했다.

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 2)